

현장과 시각

진땀 흘린 전남교사 해외연수



최재호

체육부 차장

“해외 연수는 여유를 가지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기대감으로 설렜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그런 생각을 싹 고쳤습니다”

최근 미국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이하 MS사)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 2007년도 ICT(정보통신기술활용) 활용 우수교원 국외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들은 진땀을 흘렸다.

“해외 연수라고 해서 여행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타이프한 일정과 강의 등으로 국내에 있을 때 보다 더 긴장하고 과제물도 많다”며 불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연수는 전남도교육청이 2007년도 ICT 활용 우수교원 22명을 선발, 정보화 선진국 탐방 일환으로 교육 ICT 선진기업인 미국 MS사에서 치러졌다.

이들동안 교사들은 MS사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콘텐츠(직접 쓰면서 하는 콘텐츠) ▲PIL (Partners in Learning·교원 연수과정) ▲Live@edu(한번 로그인 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통합정보 제공)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날 강사로 나선 MS사 미치 벤슨 상무는 “각국의 교사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강의해 봤지만 이번 교사들의 진지함과 높은 수준에 놀랐다”고 평가했다.

교사 해외연수는 1년간 각 분야에서 뛰어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선진국에서 다양한 문화와 선진기술을 경험해 학생들에게 전수 하라는 취지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관광성 위주로 변질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ICT교원 연수는 시작부터 사뭇 달랐다. 당초 전남도교육청은 세계적으로 ICT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인도 뉴델리대학으로 잡았고, 사장이 여의치 않자 교육 ICT사업의 선진기업인 MS사로 정했다.

연수 참가 교사들은 출발부터 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해 서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 현지에도 착해서도 4개 조로 나눠 분야별 과제를 정해 협의의 발하는 등 연수기간 내내 긴장감속에 지냈다.

연수 내용 보고서를 마무리한 한 교사는 “해외 연수 간다고 주위에서 부러워 했는데 힘들게 공부만 하고 왔다”며 꾸밈 아닌 꾸밈을 털어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개념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참가 교사들이 연수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에서 과거 지적됐던 위외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 공직자 해외연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또다른 배움의 기회로 인식되길 기대해 본다. /lion@kwangju.co.kr

‘황의 법칙’ 황창규 사장도 소환

삼성특검, 계열사 전·현 임원 8명 소환 조사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용 특별검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이 건의 삼성 회계 일가의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이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이부진 신라호텔 상무 등의 재산 내역과 주식 변동·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보유세·증여세 등 납세자료를 제출받았다.

특검팀은 자료를 토대로 이 회장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계열사 보유주식 변동내역, 납세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 비자금 운용이나 경영권 승계에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던 부동산 거래내역과 스톡옵션 자료 등이 회계장 일부 과세자료에 대해 추가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자료 요청을 해서

안 되니까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 관계가 됐는데, 추후 필요한 게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기태 삼성전자 부회장과 고위 임원 4명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도 계열사 전·현직 임원 8명을 불러 차명계좌 개설 및 비자금 조성·관리 의혹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조사했다.

오전에는 삼성종합화학 전 임원 등 2명이 나와 조사를 받았고 오후에는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과 조관태 삼성 SDS 전 이사, 정영만 삼성화학 자동차보험 총괄 전무 등이 출두했다.

특검팀은 전·현직 임원 2천453명 명의의 계좌 추적을 위해 삼성증권 전산센터를 9일째 압수수색하는 한편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삼성물산 등 5개 계열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분석 중이다. /연합뉴스

李당선인 무혐의 확정적

BBK 특검 “기소 목적 아니다”...내일쯤 결과 발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는 19일 “특검은 의혹 사항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누구를 기소해야 성공하고 불기소하면 실패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학균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A냐 B냐 할 때 A인지 B인지를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말해 당선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

김 특검보는 “각 사건의 자금흐름 추적이 거의 끝나면서 수사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난 상태”라며 “이르면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이어 김경준씨의 ‘기획입국’ 의혹과 관련 “‘기획입국설’ 한 건만 해도 상당한 조사가 필요한데 짧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며 “‘기획입국설을 수사법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은 이날 BBK 의혹과 감사의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김경준씨를 다시 소환해 BBK 설립 배경 등과 관련해 당선인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특검팀에 도착해 당선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람에게 축하한다고 전해달라. ‘나는 무혐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라고 말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검팀은 또 김씨가 작년 검찰의 BBK 수사 때 제출한 이면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들의 작성 경위와 시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전날 김씨와 함께 미국 LA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송환된 신모씨를 불러 김씨가 제출한 서류들이 LA구치소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LA 구치소에 프린터와 컴퓨터가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부, 힐 미국무부 차관보에 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주한 미국대사 출신으로 북핵 6자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로 한국에 널리 알려진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0일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는다. 외교부 조희룡 대변인은 19일 “한미

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진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힐 차관보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훈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10시 외교부 청사에서 수여한다. /연합뉴스

힐러리 ‘텍사스 결투’ 백중세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위)과 버락 오바마 의원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위스콘신주와 오하이오주에서 각각 유세를 하고 있다. 내달 4일 텍사스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두 의원은 백중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민주 경선 최대 승부처  
兩진영 사활 건 총력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내달 4일 텍사스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18일(현지 시각)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두 의원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NN과 오픈니언 리서치가 지난 15~17일 텍사스주 민주당 공화당 유권자 1천506명을 상대로 전화 조사를 실시,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50%의 지지율로 48%의 오바마에게 미세한 리드를 보이고 있지만 오차범위가 ±4% 포인트인 점을 감안할때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사실상 동률을 이룬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된 다른 두개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키팅 홀랜드 CNN 여론조사국장은 “두 주자가 이번 조사에서 박빙세를 보인 것은 텍사스주 민주당원들이 호감이 가는 두 후보를 놓고 선택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권자 4분의 1 정도가 향후 2주 내에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과 달리 힐러리와 오바마에 백중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달 4일 치러질 텍사스주 프라이머리는 모두 228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어 박빙의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는 오바마, 힐러리에겐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힐러리, 오바마 진영은 텍사스를 비롯, 오하이오(161명), 로드 아일랜드(32명), 버몬트(23명) 등 4개 주에서 경선이 열리는 내달 4일 ‘미니 슈퍼 화요일(대의원수 444명)’ 승리를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슈퍼 화요일’ 이후 8연패를 당한 힐러리 의원은 텍사스, 오하이오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향후 경선에 계속 입찰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설의 귀재’ 오바마 연설 표절 논란

힐러리 진영 “2006년 주지사 연설과 똑 같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두 상원의원이 치열한 접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탁월한 대중연설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오바마가 다른 정치인의 연설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바마는 경험은 없으면서 말만 화려하게 늘어놓는다는 힐러리 진영의 비판을 겨냥해 몇마디 말이 미국을 변화시키는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역설했다.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나

에겐 꿈이 있다’는 명언도 말이다. ‘모든 인간은 광동하게 태어났음을 진리로 믿는다’ 역시 말이다. ‘두려움 말고는 두려워할 것 이라고 없다’ 이것도 말이오 연설일 뿐이다”라고 오바마는 강조해 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오바마의 이 연설이 2006년 메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 나서 당선된 드벌 패트릭 현 주지사가 그 해 10월 15일 행한 연설 내용과 똑같다는 점이다.

오바마의 친구인 패트릭 주지사도 당시 선거 막바지에 말만 잘한다는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 오바마와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연설을 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힐러리 진영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나치지 않고 오바마와 패트릭 주지사의 연설 장면을 동영상으로 유포시킴으로써, 오바마가 연설을 표절했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이들도 밝히지 않은채 다른 사람의 연설을 표절한 것은 원래 연설을 한 사람에게 잘못일 뿐 아니라 연설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맹렬히 공격했다.

오바마 진영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오바마 측은 패트릭 주지사의 말임을 밝혔다면 좋았겠지만, 오바마와 패트릭 주지사는 서로 이념과 언어를 공유하는 친구로서 서로의 말을 나눠 사용한 한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주지사도 자신의 2006년 선거 때 경험을 살려 오바마에게 똑같은 연설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공개했다. /연합뉴스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개월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완벽 대응 기회!!  
 최고의 작정들을 자랑하는 현대교원임용 고수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책관리사 합격설명회 =  
 배주 - (화,목) 오후 6시 - (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동부경철서원  
 www.hgosi.net (062)222-6790

= 귀하의 합격!! 無等과 함께 하면 더욱 빠릅니다!!

7·9급  
**공무원**  
 전직종대비

정규이론A반 모집 **개강 3월 3일** 문제풀이반  
 주2(27학), 하1(37학)합성반 5주 완성 (전직종대비)

www.mdgosi.co.kr ☎ 222-4560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합격특강**  
 개설장: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병합직, 경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전선직, 보건직, 기술직

**9급 문제풀이반 (1개월 완성)** 개강 3월 3일  
**9급 이론출수반 (2개월 완성)** 전직종 첫진도

사전에약립수중  
**한빛공무원학원** 전대출문 복구형원  
 (062) 252-0252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신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자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IQ(지능)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주1회 8주 2개월
- ★교육비: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동부경철서원 무등고시학원
- ★접수방법: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마술지도자 강사취업 연구생 모집(마술지도자 자격증 과정)**

- 각종행사·마술출장공연·어린이관련행사·교회행사
- 각종복지관·초·중등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 하실 분

◎교육기간: 주 2회 4개월 완성  
 ◎교육내용: 초급 중급 고급과정, 아동심리학, 아동지도론, 마술학개론(이론+실기)  
 ◎모집인원: 20명 한정교육

**수료후특전**

- 전원 취업 추천
- 마술지도자 자격증 취득

**매직&매직 아카데미** ☎ (062)434-7857